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o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發行人/宋錫根 ■編輯人/宋在億 ■印刷人/宋富鎬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쌍청회관을 은송의 중심 영화지로 삼자

문중의 종인 등 5천여명이 참여한 고귀한 일

대종회장 송 석 근



송석근

존경하는 30여만 은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물 흐름과 같다는 옛 성현의 말씀과 같이 계묘년은 무더위와 긴 장마로 삶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이에 입추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나절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판암동 산소골에 모신 은송의 중시조 쌍청당(諱 儼) 선조님의 산소에 성묘하고 선조님을 경모하는 은송인의 열성이 하나로 뭉쳐 이룩한 쌍청회관을 둘러 보았습니다.

1992년 12월에, 세월이 흘러 부군의 고매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은진 송문(宋門)은 6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에 30여 만을 헤아리는 긍지 높은 삼한의 명문거족으로 변창하여 그동안 쌍청당 선조님을 모시는 경모제는 협소하고 퇴락하여 새 회관건립을 위한 취지문을 전 종인에게 통문하고 성스러운 대역사(大役事)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여 문중 종인 5,221명, 각파 종중 및 친목단체 240여곳, 외국 거주 종인 9명, 타성씨 현성자 43명의 정성을 모아 회관 건립 총 헌성금 21억 1천 2백 8만원이 쇄도하여, 1994년 6월 10일 착공식을 하고 대지 1,700여평, 본당 60여평, 관

리사 30평, 옥탑 화장실 22평 등 목조건물 130여평, 회의실과 식당으로 사용될 지하 콘크리트 건물 150평, 그리고 주차장 500평을 1998년 8월 23일 전국 방방곡곡의 종인들의 열화같은 환희 속에 준공식을 하여, 쌍청당 조상님의 혼령이 이곳을 호위하시고 자자손손 송조모선(崇祖慕先)의 정성과 온고지신의 슬기로운 은송 명문의 유훈과 법도를 계승 발전시키고 밝은 달빛과 맑은 바람이 끊임없이 머무는 쌍청의 명소로 길이길이 빛나고 백세청풍(百世淸風) 삼한정기(三韓精氣)가 서리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소골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웅장한 쌍청회관 일원은 1998년 4월 1일 모 종인에게 임대차되었고, 2007년 6월 1일 쌍청회관 일원의 임대차 계약은 모 종인의 아들 명의로 승계되어 임대차 변경계약(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3백만원)을 하여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쌍청회관은 세월과 풍우로 인하여 본당 목조건물은 목재의 부식과

기와지붕의 물매가 기울어 가고 있고, 자요당(관리사)는 지붕이 새고 있으며, 쌍청당 산소 올라가는 길의 봉선문은 무너져서 새로 지었고, 출입하는 큰 문인 송덕문 오르는 계단은 층계석이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은송인의 고귀한 정성으로 지어진 쌍청회관은 대종회가 명도받아 보수하고 적극적 관리를 할 때가 되어 2018년 5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으로 부터 명도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모 종인과 그 아들을 피고로 하는 명



▲ 쌍청회관 전경

도 소송을 하여, 2019년 10월 10일 합의 조정 판결을 받고, 또 임대인의 명도 준비 기간으로 2021년 4월 30일까지 주었으나, 기간이 지나도 명도되지 아니하여 2021년 6월 7일 조정 판결에 의한 명도 단행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모 종인의 아들)이 모친(모 종인의 부인)과 2015년 3월 10일자로 전전대 임대차 계약되었음이 확인되어 명도 단행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2021년 7월 21일 그 모친을 피고로 쌍

청회관 일원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1억 1천 4백만원)가 미납되고 있어 이를 내줄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전대 쌍청회관 건립 성금을 모아주신 종인과 종중, 단체, 그리고 타성씨인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귀중한 은송의 문화의 전당은 모 종인 개인 사업장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그 고귀한 정성에 은송인은 정중히 머리 숙여야 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통상거래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요청하면 임차인은 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인 것입니다.

쌍청당 선조님의 열과 체를 본받은 은진송씨 종인은 쌍청회관의 낙수물이 애잔한 눈물로 흐르는 광경을 좌시하지 말고 모두 뜻을 모아 20여년전 쌍청회관 준공의 열화로 다시 응집될 때 우리 은송은 명문거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맺으면서

마산동의 추원사 그리고 열부 안인류조비님을 모시는 관동묘려와 천여기의 은송 선조님들이 잠드신 이사동, 대청호를 품고 있는 사성동의 훌륭한 선조님들의 유지를 받들고 송조 돈독하여 은송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심 영화지로 판암동 산소골의 쌍청회관을 만백년 자자손손 은진송씨 대종회 본거지로 삼을 것을 간곡히 천명합니다.

2023년 8월 일

2023 제2차 고문간담회 개최

2023년 7월 11일(화) 12:00 선화동 원일회관 1층에서 2023년 제2차 고문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인원은 6명(송교진 대종손, 송범섭 고문, 송준빈 고문, 송동호 고문, 송태영 고문, 송희원 고문)

으로 대종회장 송석근은 존경하는 고문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이어서 향고연고(行高年高)의 바탕위에 송조돈독하는 대종회가 되도록 미력을 다하

겠다는 인사말에 이어서 2023년도 대종회 업무추진상황(종보발간, 쌍청



▲ 고문간담회

회관 명도소송 관련 파우사회 회의록 보완작성, 쌍청당 보수공사, 관동묘려와 류조비산소, 지평공재실 관리실태, 지평공재실 화장실 확장공사 등)을 설

명하고, 고문님들의 대종회 번영발전에 대한 고견을 나누고 조출한 초복날복달임으로 대종회와 종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2023년 고문 및 임원회의 개최

2023년 8월 4일(금) 11:00 대전시 대덕구 법동 원일빌딩 6층 대종회장

실에서 2023년 고문 임원회의를 가졌다. 참석임원은 6명(고문 : 송동호, 송태영, 송희원, 부의장 송삼덕, 감사 : 송용순, 송재무)으로 대종회장(송석근)은 더운 날씨에 회의에 참석해 주

셔서 감사드리고 대종회의 현안을 보고 드리고 존경하는 고문·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는 인사말에 이어서 2023년도 대종회 업무진행상황

(동구청에서 주관하는 관동묘려, 추원사, 류조비 산소 주변



▲ 고문 및 임원회의

숲가꾸기 사업, 지평공재실 화장실 확장공사, 대덕구청에서 주관하는 쌍청당 보수공사, 쌍청회관 명도소송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제14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참여여부에 대하여 고문 임원들과 고견을 나누고 임원, 고문, 종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2023년도 쌍청당상 후보자 추천

2023년 11월 13일(음력 10월 1일) 월요일 쌍청당 세일사일에 시상하는 쌍청당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은송의 남자 자손 중 자기 분야에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가문을 빛내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자 합니다.

은진송씨 포상심사규정 제5조 참조(홈페이지 포상/장학 참고)

1. 접수마감 : 2023. 10. 10.

2.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 대종회 (우)34406 E-mail : ejso835@hanmail.net / 팩스 042-633-0531

3. 제출서류 :

가. 각 파 공사원 또는 광역 시도 종친회장 추천서 1부

나. 공적조서 1부 (객관적으로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4. 각 파 공사원 및 광역 시도 종친회장에게 제출하여 공사원 또는 광역 시도 종친회장이 대종회로 공문 발송

서울 도봉서원 춘계제향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지난 4월 29일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산 도봉서원 터에서 제450주기 도봉서원 춘향제를 봉행했다.

봉행은 사단법인 도봉서원과 조광조의 후손인 풍양 조씨 가문, 송시열의 후손인 은진 송씨 가문(송자각하

한편, 도봉서원은 1573년 선조 6년 정암 조광조를 모시기 위해 양주목사 남언경이 유림의 뜻을 모아 영국사 절터에 창건하였으며 창건당시 사액을 받았다.

이후 도봉서원은 우암 송시열을 같이 모셨으며, 1775년 영조51년에는

영조로부터 “道峯書院”이란 친필현판을 받아 어필사액서원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1871년 대원군의 서원



▲ 서울 도봉서원 춘계제향

가운데 도봉서원 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전향례, 헌작례, 독축 순으로 예를 다해 진행되었고, 송영문 종친회장의 춘향제 경모화환이 돋보였다.

이날 춘향제에 참가한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도봉서원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면서, “도봉구의 유일한 사액서원이자 서울시 기념물 도봉서원에서 춘향제 봉행을 위해 애써준 사단법인 도봉서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철폐령에 걸렸다.

그 후 1972년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사당을 다시 중건했으며, 정암조광조·우암 송시열을 추모하기 위해 사당을 건립해 매년 춘추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과 각석군’으로 11기의 각석과 함께 지정됐다. 2011년부터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해 사당을 철거해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도봉서원 이사 송축현(삼기당공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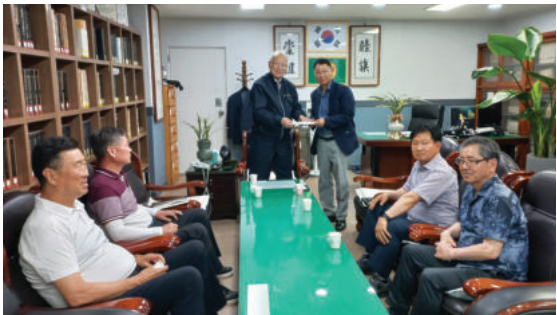
송창공파 상서종중 대종회 방문

2023년 6월 26일 송창공파의 상서종중(16세 諱 천석(天錫), 17세 諱 한

경(漢卿) 종중) 송치안 회장과 송국섭 총무, 송문섭 재무는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종회사무실을 방

대종회장(송석근)은 우중에 귀중한 헌성금을 가지고 방문하여 진심으로

고마움과 헌성금은 대종회 운영에 유익하게 쓰겠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대종회와 파종중간의 중증발전을 위



▲ 상서종중 대종회 방문

문하여 송석근 대종회장과 송인한 장재유사, 송인집 총무유사가 환영하는 가운데 은진송씨 종중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20만원을 헌성하였다.

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덕은도서실을 둘러 보고 자주 와서 좋은 서적을 열람하자는 덕담을 나누었다.

뿌리공원 시화전 공모 안내

2023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뿌리축제를 맞이하여 “조상의 열과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1회 시화공모전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종원께서는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주제 : 성씨의 탄생설화 또는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과 전통을 시화로 표현
2. 응모부문 : 시화(창작한 시, 시조를 그림에 담아 결합한 시화작품)
3. 응모대상 : 문중당 2작품(문중 중앙단위 대표자가 선별하여 추천)
4. 접수방법 : 뿌리공원문중협의회 홈페이지(www.fakpp.kr) / 협의회소개 / 공지사항 1번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5. 접수기간 : 2023. 8. 1. ~ 9. 15 18:00까지
6. 작품규격 : 세로로 제작(500×1,200mm) 사진파일로 제출
7. 심사발표 : 2023. 9. 20. 심사결과 개별 통보
8. 안내문의 : 중도문인협회 010-6414-3317
9. 접 수 처 : 은진송씨 대종회

지평공재실(注山丙舍) 보수공사



▲ 건물 전면 페인팅

지평공 재실은 매년 음력 10월 10일 지평공 세일사에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세일사를 봉행하고 있다. 그동안 재실 화장실이 협소하고 설비가 노후되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 종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대종회에서는 기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여자 전용 화장실로 만들고, 옆 빈 공간을 남자 전용 화

장실(세면대, 양변기, 소변기 구분 설치)을 현대식으로 만들었다. 대종회에 서는 앞으로도 대종회 소유의 건물과 재실 등의 설비가 노후되어 종원들의 이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여 각종 행사나 세일사 등에 참석하시는 종원들께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남자 화장실

추파공각하 천곡공 자손종중 대종회 방문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2023년 7월 18일 11:00 추파공 각하 천곡파 자손종중 송중현 회장과 송규식 총무이사, 송희린 재무이사, 안동공(9세

諱 여해(汝諧)가 평공(10세 諱 세충(世忠) 종중 송규범 회장(감사)이 대종회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송석근 대종회장과 송인한 장재유사, 송인집 총무유사, 종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천곡파 자손종중 명의

로 은진송씨 장학성금 300만원을 헌성하였다. 대종회장은 추파공 각하 천곡파 자손종중의 높은 승조정신과 후예

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에 큰 헌성금을 내주어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천곡파 자손종중 송중현 회장은 금년 하반기에 대전지역 선적지 순례계획에 대하여 대종회의 안내 등 은진송씨 종중발전에 유익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좌로부터 송규식 총무이사, 송희린 재무이사, 송석근 대종회장, 송중현 회장, 송규범 회장(감사)

서울종친회 임원과 대전거주 종원 대종회 방문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2023년 7월 13일 서울종친회 송삼덕 회장(충순위공파)과 송창용 총무(안소당공파)와 충북 보은거주 송정용 부부(안소당공파), 대전거주 송준자(안소당공파) 등의 종원이 대종회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특히 송준자씨는 은진송씨 21세손(憲字 항렬)으로 팔손 고령의 출가외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은송의 옛날 대종회, 세일사 참제와 쌍청회관 건립과정에 헌성 참여 등 좋은 이야기를 말하였고, 후손의 장학사업의 성금으로 일금 50만원을 헌성하였다. 이에 대종회장(송석근)은 뜻깊은 장학성금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정중히 하였다.

대종회를 방문한 종원들이 서울, 충북 보은,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고령이고 은송 항렬의 21세 등 높은 분들이

어서 더욱 즐겁고 화기애애한 정담으로 은송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가 주마등이 되는 자리였다.



▲ 대종회를 방문한 서울종친회 임원

보은에서 오신 분(송정용)

은 우중에 대종가와 쌍청당을 둘러보면서 앞은 들판이고 전답이 있을 때 보았다는 먼 옛날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명문가 은진송씨 후손으로 자긍심을 함양하자는 큰 뜻을 모았다.

〈각 종중 임원개신〉

파명	성명	날 짜	내 용
우암문정공파	송안호(宋安鎬)	2023.03.25.	任 공사원

판암동 산소골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은진송씨 증시조 쌍청당(諱 愼) 선조님과 수옹(諱 甲祚) 선조님의 산소를 모신 판암동 산소골 입구 보호수 그늘 아래에 있는 “쌍청당 묘표(2021.07.19.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65호), 수옹 송갑조 신도비와 수옹 송갑조 후기비(2021.07.19.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66호), 그리고 쌍청당 암각(2021.07.19. 대전시 문화재자료

(宋明諱) 때부터이지만 은진송씨가 회덕의 송씨라고 불릴 만큼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송유 때 부터이며 송촌(宋村)이라는 지명도 이 무렵부터 불렸다.

형태는 크고 높은 받침돌을 놓고 비석을 세웠는데, 받침돌의 윗부분에는 여러 겹의 연꽃잎을 새기고, 옆면에는



▲ 신도비와 안내판

제67호)의 대전시 지정 문화유산자료 안내판을 2023년 7월 6일 설치하여 은송의 선조님 유적이 대전시 지방문화재로서 그 면목을 갖추었다.

대중회에서는 현장을 찾아서 여름철 폭염에 구슬땀을 흘리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묘표와 신도비 입구에는 “송갑조 신도비”라는 안내 팻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문으로 새겨진 3개의 비석 앞에 한글로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현상이었다.

안내판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쌍청당(雙淸堂) 송유(宋愼) 묘표

쌍청당 송유 묘표는 송유의 행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석이다. 쌍청당(雙淸堂)은 송유의 당호로 세종때 아악을 정리한 박연이 지어준 것이며,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전을 대표하는 사족(문벌이 좋은 집안)중 하나인 은진송씨가 회덕에 정착한 것은 송유의 조부인 집단공 송명의

줄에 펜 구슬 모양의 장식과 상(床)다리와 같은 문양을 새겨 넣었다. 비문을 새긴 비석의 몸체 위에는 팔작지붕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한 가첨석(비석위에 덮여 엮은 지붕모양의 돌)을 올렸다.

17세기에 세워진 이 묘표의 비문은 김상헌이 지었고, 글씨는 김집이 썼다. 두전(비석 몸체의 머리부분에 둘러가며 쓴 전자(篆字))은 송준길의 글씨이다. 비석에는 1천여명에 이르는 자손이 친손, 외손 구분없이 기록되었는데, 이처럼 방대한 인원을 수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친손과 외손이 모두 기록된 것은 가부장제가 강화되기 전인 17세기 이전의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옹(睡翁) 송갑조(宋甲祚) 신도비

수옹 송갑조 신도비는 송갑조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이다. 송시열의 아버지로 영조때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17세기에 세워졌으며 송시열이 비문을 짓

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으며, 두전은 김수항의 글씨이다.

네모난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받침돌을 놓고 비석을 세웠는데, 받침돌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돌을 자르기 위해 켜기를 박았던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이 일렬로 남아 있다. 비석의 윗부분에는 네모난 판석위에 간략화 된 기와집 형태의 가첨석을 올렸다. 이처럼 이중으로 된 가첨석과 조각을 하지 않고 화강석을 다듬은 비석 받침돌 등은 같은 시대인 조선 중기의 다른 신도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이다.

③ 수옹 송갑조 후기비

수옹 송갑조 후기비는 1726년에 송갑조가 경현(景獻)으로 사시(賜諡·임금이 시호를 내려주던 일)를 받은 사실과 영의정으로 추증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18세기에 추가로 세운 비석이다. 오석(烏石)으로 된 비석 앞면의 큰 글자들의 일부가 떨어져서 지은이와 옮겨 쓴 이를 알기 어렵다. 이의현의 문집 “도곡집”의 기록을 보면 지은이가 이의현임을 알 수 있다. 이의현은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제월당 송규렴의 아들인 송상기에 의해 당대의 명문장가로 천거된 인물이다.

후기비는 비석 받침돌 위에 비석을 놓고 기왓골이 선명하게 새겨진 우진각 (네개의 추녀마루가 등마루에 몰려 붙은 지붕으로 지은 집)형태의 가첨석을 올렸다. 가첨석과 비대에 민속적인 문양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점과 신도비 후기를 비로 세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묘표와 신도비에서 약 150m 우측 큰길가의 쌍청당 암각에도 안내판이 새롭게 세워졌다.



▲ 안내판설치 독려

④ 쌍청당 암각(巖刻)

쌍청당 암각은 크게 다듬지 않은 자연 암석에 글자를 새겨 넣은 일종의 지명각석(地名刻石)이다.

앞면에는 “쌍청당 수옹 이묘 재 건방 이백오십보 백대”, 옆면에는 “청풍(淸風)“, 뒷면에는 “삼한정기(三韓正氣)”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쌍청당(송유)과 수옹(송갑조)의 묘는 서북쪽 250보 되는 곳에 있다. 백대(百代)의 청풍이요, 삼한의 정기로다”라는 뜻이다.

이 글귀는 1687년에 김수증이 팔분체(八分體)로 썼다는 기록이 조선환여승람에 전하는데 김상헌의 손자인 김수증은 제월당 송규렴의 손위 처남으로 우암 송시열과도 깊은 교분은 나누었던 사이였으며, 팔분체에 능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쌍청당 암각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정계에 복귀한 우암이 회덕에 은진송씨의 뿌리를 내린 쌍청당 송유와 자신의 아버지 송갑조를 위해 김수증에게 부탁하여 글자를 새겼다는 이야기가 담긴 지명각석으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 쌍청당 암각

장마철 대비 중중소유 재산 일제점검

2023년 6월 15일 대중회에서는 대종회장과 총무, 장재유사가 장마철을 앞두고 중중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류조비묘역과 관동묘려, 추원사를 비롯한 지평공재실, 쌍청회관, 쌍청당(대종가) 그리고 원일빌딩을 비롯한 각 건물등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쌍청당 뒷편의 배수구 막

힘은 6월 21일 대덕구청 문화체육관광과를 방문하여 장마가 오기전에 배수구에 쌓여 있는 토사와 나뭇잎의 제거작업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원일빌딩의 누수부분에 대하여 긴급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관동묘려와 추원사 주변은 동구청에 건의하여 동구청에서 인력을



▲ 점검중인 송석근회장

동원하여 예초작업을 깨끗이 하였으며, 지평공재실의 안팎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6월 24일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재실밖의 예초작업과 담장 안·밖의 잡초제거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재실이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대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중중소유의 건물과 재실등을 현장 방문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

하여 중중소유 재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 지평공재실 예초작업

홈페이지 주소 홍보

인터넷에서 **은진송씨 대중회**

<http://www.ejsong.co.kr>

합천 유전마을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학술대회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소장 강정화교수)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경남지역에 세거(世居)하는 전통선비마을을 선정해 그 문중 내력과 역사적 인물을 살펴 학계에 소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합천군 대병면 유전마을에 대하여 지난 6월 23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제별 발표가 있었다.

- 합천 유전마을의 입향(入鄕)과 역사적 내력
{기조강연 : 허권수(경상대학교 명예교수/동방한학 연구소장)}

쌍청당 송유(宋愉)의 현손 충순위공 송세적(世勳)(1481.09.13.~미상)은 통례원 찬의 광계(光啓)의 따님과 혼인하여 삼가현 병목(지금의 합천군 대병면)에 정착하게 되었다. 남명 조식 선생(1501~1572)은 광씨 집안을 인물이 많이 배출된 명문이라고 하였다. 송세적은 자질이 순박하고 아름다워 명리를 탐하지 않고 관대한 덕이 있었으며, 의인 광씨는 규범과 덕기가 있었다. 공의 묘소에는 대제학 호음 정사



▲ 학술대회 광경

룡이 찬한 묘갈이 있었는데 임란때 훼손되어 왕자사부 임진부가 다시 지었고, 의인 광씨 묘표는 손서인 남명 조식이 지었다. 충순위공은 아들 5형제 형(珩), 함(瑊), 인(璘), 관(罐), 기(琦)와 손자 12분을 두었다. 후손들은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문집을 남긴 분이 40여 명이나 되며, 은진송씨를 있게 한 쌍청당 선조를 모신 봉암사(봉암서원)가 있었는데 고종때 훼철되었다. 유전 본 마을은 합천댐건설로 수몰되어 재사 및 일부만 위쪽으로 분산 이전하였다.

- 17세기 존양재 송정렴(存養齋 宋挺濂)의 학문 연원과 그 역할
{발표 : 강정화(경상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 강동욱(진주문화원)}

외숙인 임곡 임진부와 동계 정온의 문인으로 학문연구에 전념하다가 외숙의 권유로 대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 예조 정랑, 순천부사, 장락원정, 사헌부 집의, 사간원 사간 벼슬을 하면서 부정한 관원들을 질책하고 민생을 구하고자 군역과 환곡의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으며, 남명의 4전 제자(4대째 내려오는 제자)이면서 미수 허목과도 종유하였다. 덕천서원(남명 조식 제향) 원장을 비롯하여 서계서원(덕계 오건

제향), 남계서원(일두 정여창 제향), 용문서원(일두 정여창 제향), 용암서원(남명 조식 제향), 덕곡서원(퇴계 이황 제향) 원장을 역임한 것을 보면 경상우도에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송풍재 송지식(松風齋 宋之拭)의 학문 연원과 영남학계에서 위상
{발표 : 박소희(영남대학교), 토론 : 백지국(영남대학교)}

어린 시절 가학으로 남명학을 접하고 평소 남명이 강조했던 쇄소응대(灑掃應待) : 요즘 학자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는 절차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天理)를 담론하며 허명을 흠친다)를 기본으로 삼아 실천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남명의 신명사도(神明畵圖:심성수양의 요체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를 벽에 걸어 놓고 성현의 글에 매진하였다.

향시에 합격하고 문과에는 떨어져 출세보다 군자의 도리를 실천하고자 과거를 단념하였다. 갑암 이현일 문하에 들어갔는데 동료들로부터 남주의 높은 선비라고 칭송을 받았다. 용암, 덕곡, 고암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남명학과 퇴계학의 절충적 계승자



▲ 봉암서원 유허비 및 세거비 등

(宋在洛), 의재 송호완(宋鎬完), 상헌 송철수(宋哲秀), 향재 송호곤(宋鎬坤) 등이 목숨을 걸고 서명하였으며, 피체되었다가

풀려나오게 되었고 모두가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합천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과 서울, 부산, 대구, 진주에서도 일부 종원이 참석하였고 합천유림과 진주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였다. 발표내용중 일부만 간략히 기록하였다.

〈대구거주 충순위공파 송길영(은진송씨 대종회 전.상무유사) 제공〉

대종회, 우암 송시열 선조님 유허비 방문

2023년 6월 21일 송석근 대종회장, 송인한 장재유사, 송인집 총무유사는 우암 송시열(1607년~1689년) 선조님이 외가마을에서 태어나 26세까지 살던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구룡촌(이원면 용방리 134-2)에 있는 유허비를 방문했다. 옥천에서 영동쪽으로 가는 큰길에서 마을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정자각이 보이고 그 안에 비석이 들어있다. 충청북도에서 잘 관리해준 덕분인지 정자각 주변은 잡풀없이 단정한 상태여서 고마움이 느껴졌다.

비석에는 “우암송선생유허(尤菴宋先生遺墟)”라고 새겨져 있으며, 유허비 안내표지판에는 “이 비석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나고 살던 곳을 알리기 위해 1778년(정조 2년)세운 것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로 노론의 우두머리이다. 1633년(인조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봉림대군 효종

의 스승이 되었다. 병자호란후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다가 효종이 즉위하자 관직에 나아가 반청의 기치로 북벌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현종때에 좌



▲ 송시열 유허비 방문한 송석근 회장과 송인한 장재유사

의정에 올랐다. 1689년(숙종 15년)에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에 귀향갔다. 신문을 받기 위해 상경도중에 남인의 책동으로 정읍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후에 영의정의 벼슬을 추증 받았다. 시호는 문정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송시열 유허비 옆에는 또 다른 정려가 있다. “충신봉사 광자방지려(忠臣奉事 郭自防之閭)”라고 적혀있다. 자세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아 돌아와 알아보았더니 광자방(郭自防)(1557년~1592년)은 본관은 선산(善山). 할아버지는 생원 광지정(郭之楨)이고, 아버지는 통정대부 광언(郭諤)이며, 어머니는 나주 박씨(朴氏)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봉사(訓練院奉事)가 되었다. 그 뒤 옥천에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의 장졸들을 모아 조헌(趙憲)의 휘하에 들어갔다. 의병장 조헌이 이끄는 향병(鄉兵) 1,700여명과 함께 보은을 거쳐 청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의병장 신간수(申簡秀)·장덕개(張德蓋) 등과 승장(僧將) 영규(靈圭)가 이끄는 3,800여명의 군사와 더불어 왜군과 싸워 청주성을 탈환하는데 크게 활약, 전공을 세웠으나, 금산성전투(錦山城戰鬪)에서 조헌과 함께 전사하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송자대전(宋子大全)』



▲ 우암 송시열 유허비

또 다른 참고 문헌에서는 광자방은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를 사위로 맞이하여 후에 선산 광씨의 각



▲ 광자방 정려

종 문헌을 송시열이 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유전(鄭維騫)의 조카從子 정점(鄭靄)과 박인의 아들인 박익성(朴益誠)은 광은의 증손서(曾孫婿)로 광자방과는 4촌간이 된다.

이와 같이 옥천지역의 유력한 사족들과 혈연으로 연결된 선산 광씨에서 의병에 나섰던 광자방·광현(郭鉉)·광송인(郭崇仁) 3인 중 가장 활발한 의병 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광자방이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국조인물고』, 『송자대전(宋子大全)』, 『옥천군지』(1994)

“우암송선생유허(尤菴宋先生遺墟)” 비석 옆에 있는 정려각은 우암 선조님의 외할아버지인 광자방의 충신정려인 것이다.

명문가(名門家) 조건(2회)

사우당효정공과 공사원 송 진 괄(鎭适)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이처럼 나의 뿌리를 알려주고 내가 단일체가 아닌 유기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족보이다. 또한 족보를 통하여 같은 성씨(姓氏)끼리 단합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지(山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선사시대부터 매장(埋葬)문화가 발달했고, 조선에 와서는 풍수지리(風水地理)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조상님의 체백(體魄)을 모시는 일을 중요시해 왔다. 그렇기에 분묘를 배알하는 것을 가문 단합의 단초로 언급하셨던 것 같다. 또한, 내가 공사원 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느낀 점은 조상님의 묘(墓)가 우리 가문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수많은 은송인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번영해 나갈 수 있었던 근본은 한 분의 시조(始祖)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상님들의 묘가 지금껏 이어져 내려와 은송인(恩宋人)들을 관통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나의 시조가 묻혀 계신 곳을 가꾸고 성묘(省墓)하다보면 묘한 안도감이 든다.

또한 바쁜 현실을 살다가 부모님 묻혀 계시는 자리에 가면 부모님과 옛 생각이 나며 상념에 빠지곤 한다. 지금은 매장문화가 사라지고 90%의 사람들이 매장보다는 화장(火葬)을 택한다고 한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바다나 산에 뿌리기도 한다. 아무렴 어떠랴. 나는 풍수학(風水學)이라던지 추길피흉(趨吉避凶)의 문제는 알지 못한다. 단지 부모님이나 조상님 계신 자리에 가면,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본 한 유학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유학과 성리학은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세상만사 우주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치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 그 이치란 다름 아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천하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부모의 은혜를 돌이켜 효도를 하는데, 그것이 곧 예절이며 사람이 지닌 오륜(五倫)이라는 말씀이 참 감명 깊었다. 그렇기에 조상님이 계신 장소에 가면 느끼는 안도감과 추억은 천지(天地)의 이치를 행하였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기에 그렇지 않나 싶다.

그리고 문집을 통해 조부께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은, 마지막에 언급하신 친인척간 친애(親愛)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족보를 정리하는 문제도, 분묘를 배알하는 것도, 결국 친인척간 우애와 문중간 화합이 목적이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삼아 나라가 발전하고 온 인류까지 퍼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조부의 생각이자,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천하(天下)는 부부사이의 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도 결국 한 부부로부터 출발한 한 사람일 뿐이다. 그 부부가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문을 이루며 나아가 씨족, 고을, 국가를 이루었으니 가문(家門) 내 화합하고 평온한 일은 결국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문집에서 말하듯 나라를 위하는 길은 그저 친척 간에 잘 지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일 일듯 싶다.

지금은 사촌(四寸)간에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길에서 마주쳐도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본 먼 친척이 남과 다를 바 무엇이라 싶다. 그러나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보면 조상님이 같고, 또 모두 한분의 시조 아래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이다. 유럽은 문자만 같이 써도 한 가족이라 하여 연합체를 이루었다는데, 실제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家門)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부모 사랑이 천지 이치라는 말대로 나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후손들이 발전하여 우리 은진 송씨(恩津宋氏)라는 가문이 명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명문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씨(姓氏)가 존재하고 각 가문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은진 송씨도 명문가 반열이라 할 만 하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명문가라 불릴만한가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훌륭한 조상님을 두었다고 해서 명문가인가? 돈이 많고 고관대작을 낸 가문이 명문가인가? 나는 그저 조부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며 가문간 화합하고 잘 지낸다면 명문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 이 세 가지를 돌이켜보며, 우리 은진 송씨(恩津宋氏)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길 소망해본다.

-끝-

쌍청당·지평공 세일사 안내

매년 모시는 쌍청당 부군과 지평공 부군 세일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할 예정입니다. 세일사를 모신 후에는 쌍청회관에서 정기총회와 쌍청당상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자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쌍청당 세일사	11월 13일 (음력10월1일)	월요일	11시	대전 동구 판암동
지평공 세일사	11월 22일 (음력10월10일)	수요일	11시	대전 동구 주산동

〈선대 세일사 일정〉

세일사 날짜	선 대	묘소 소재지	주관자
음 3월 10일	류조비, 진사공(克己)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	추원사(1~4세)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음 10월 1일	쌍청당(淸)	대전 동구 판암동	대중회
음 10월 3일	사우당공(國澤)	충북 보은 수한면 발산리	송진괄 010-5450-3533
음 10월 5일	평산공(斯敏)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	정랑공(順年)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음 10월 9일	감역공(奎洛)	대전 동구 마산동	송춘영 010-2878-9114
"	안소당(國憲)	충북 청주 남일면 두산리	송우영 010-3426-4902
음 10월 첫째 일요일	영천공(暉)	경북 영주 평은면 지곡리	송영식 010-3860-8433
음 10월 초정일	후암공(栢年)	경남 함양 서하면 황산리	송주영 010-6407-3325
음 10월 10일	지평공(繼祀)	대전 동구 주산동	대중회
"	사직공(繼中)	대전 동구 사성동	사직공 종중
"	장사랑공(胡年)	대전 동구 마산동	송병수 010-8574-4464
"	주부공(眉年)	대전 동구 사성동	송광현 010-8329-2495
"	참봉공(世良)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중호 010-5483-1656
"	서부공(龜壽)	충북 청주 남이면 사현리	송중호 010-5483-1656
"	도사공(應期)	충북 청주 남이면 문동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1일	충순위공(世勳)	경남 합천 대정면 유전리	송호덕 010-8626-7201
"	부원당공(時倓)	충남 계룡 엄사면 도곡리	송재강 010-8811-5453
"	삼기당공(龍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형헌 010-3414-4797
음 10월 12일	연안공(奎淵)	전북 무주 부남면 굴암리	송기선 010-7767-2489
"	수옹공(甲祚)	대전 동구 판암동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13일	습정공(邦祚)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4일	빙호공(時琰)	충북 청주 남이면 외천리	송재은 010-2212-5009
음 10월 15일	목사공(逢年)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양근공(汝霖)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송지공(世英)	대전 동구 이사동	송능기 010-2755-0827
"	선무랑공(汝楫)	대전 동구 이사동	송길순 010-5451-2291
"	진산공(時默)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호 010-4756-8813
음 10월 16일	안악공(世勳)	대전 동구 이사동	송석태 010-5420-1533
"	집의공(世勉)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청풍공(世勳)	대전 동구 주산동	송백순 010-3118-0689
"	송담공(柟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하영 010-4920-5336
"	판관공(世雄)	대전 동구 이사동	송두식 010-4431-0665
"	통정공(世勳)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찬 010-5403-2100
"	진사공(世勳)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환 010-4252-8781
"	잠부공(汝礪)	대전 동구 주산동	송정현 010-3213-4921
"	동파공(汝翼)	대전 동구 마산동	송영대 010-3495-4206
"	안동공(汝諧)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	가평공(世忠)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음 10월 17일	참판공(樸壽)-청죽당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추파공(麒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계용 010-4401-1151
"	임천공(應樞)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영천공(爾昌)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송월재공(希得)	대전 동구 이사동	송종영 010-8803-5678
"	안동공(希建)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쌍계당공(應祥)	대전 동구 비룡동	송철기 010-5428-4366
"	참판공(希遠)-학유공	대전 동구 이사동	송하영 010-4920-5336
"	통례공(興門)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판서공(國銓)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무 010-5597-7762
"	취옹당(希命)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고창공(國士)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	삼가공(桂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감역공(鍵)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장령공(希進)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음 10월 18일	호군공(國重)	대전 동구 이사동	송덕영 010-3005-6393
"	송창공(綬祿)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영 010-8821-0909
"	자산공(世協)	대전 동구 판암동	송이영 010-5456-8997
음 10월 19일	제월당공(奎瀛)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송인무 010-5597-7762
"	송지공(玲)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괄 010-5450-3533
"	금암공(夢寅)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괄 010-5450-3533
양 3월 마지막일요일	장성공(時燾)	충북 보은 수한면 교암리	송준호 010-2036-8464
양 4월 둘째 일요일	무주공(時杰)	충북 영동 심천면 칠현리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셋째 일요일	첨사공(世勗)	대전 동구 이사동	송서호 010-5409-3211
양 11월 첫째 일요일	우봉공(應光)	경기 고양 신도면 현천리	송영준 02-2274-6987
양 11월 둘째 토요일	장사랑공(栢壽)	충북 충주 엄정면 논감리	송한섭 010-9321-7955
양 11월 둘째 일요일	모은공(基想)	전북 고창 해리면 평지리	송재경 010-4614-2323
양 11월 셋째 토요일	규암공(麟壽)	충북 청주 문의면 남계리	송재웅 010-5308-0765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3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XI. 충현서원(忠賢書院)

1. 현황

- 소 재 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81번지
- 문화재지정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0호 (1984.5.17.)
- 문화유적 :충청남도 기념물 제46호 (1984.7.26.)
- 배향인물 : 주자 朱子, 이존오 李存吾, 이목 李穆, 성제원 成悌元, 서기 徐起, 조헌 趙憲, 김장생 金長生, 송준길 宋浚吉, 송시열 宋時烈
- 창건년도 : 1581년(선조14)
- 사액년도 : 1624년(인조2)
- 향 사 일 : 음력 3월 9월 중정일

2. 연혁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으로 서기徐起가 노년기에 서원 소재지인 공암에 정착하여 죽기까지 19년간을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공주의 사림 문화 형성에 공헌을 하였다.

1581년(선조14)에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주도하고 당시 공주 목사 권문해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곳에 서원을 세우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를 중앙에 모시고 공주의 향현鄉賢 이존오李存吾, 이목李穆, 성제원成悌元을 배향 하였다.

서기가 죽은 다음 해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것을 1610년(광해군2)에 중수하고 1624년(인조2)에 사액서원이 되어 국왕이 내려주는 편액과 토지 3결에 대한 면세, 그리고 관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았고 서원의 창설자



▲ 충현서원 현판



▲ 충현서원 사당

인 서기를 남강고사南康故事를 모방하여 別祀하기 시작하였다.

1652년(효종3)에 조헌을, 1674년(현종15)에 김장생을, 1686년(숙종12)에 송준길을, 1713 (숙종39)에 송시열을 추배하였고, 1712년(숙종38)에는 연천의 임장서원에서 주자의 화상을 모사해서 신판神板 뒤에 봉안하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최구서가 짓고 조상우가 쓰고 윤덕준이 전을 한 충현사원 사적비명忠賢書院 事績碑銘을 서원 뜰에 세웠다.

1871년(고종8)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25년 사우를 중건하였고, 1969년에 사단법인이 결성되어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1989년 강당이 중건되고 1994년 관리사가 건축되었다.

3. 인물 약전

- 1) 주자 朱子(1130-1200)
- 주자는 남송말의 인물로 자가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이고, 주돈이 정이의 새로운 학문을 조성하여 이를 집대성하였으며 사서를 중요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문 체계를 세웠다
- 2) 이존오 李存吾(1341-1371)
- 고려 후기의 문신 자는 순경順卿, 호는 석탄石灘, 1360년 공민왕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수원서기를 거쳐 사관에 발탁되었고, 1366년 우정인이 되어 신돈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이색 등의 옹호로 극형을 면하고 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 되었다가 공주 석탄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울분 속에 지내다가 죽었다.
- 정몽주 박상충과 교우하였고 신돈의 전횡을 풍자한 시조 1수와 그 외 3수의 시조가 전한다.

후에 성균관대 사헌에 추증되었고 여주 고산서

원 부여 의열사 무장 충열사에 제향되었다.

- 3) 이목 李穆(1471-1498)
- 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중옹中雍, 호는 한재寒齋, 시호는 정간貞簡, 본관은 전주, 개국공신이다. 14살에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김굉필 정여창과 동문수학하였다.
- 1489년(성종20) 19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유생이 되었고, 1490년 성종이 병환에 있을 때 대비가 무당을 시켜 성균관 벽송정에 음사를 설치하고 굿을 하자 유생들과 함께 제단을 부수고 무당을 쫓아냈다. 대비가 대노하여 성종에게 고하였으나 성종은 유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주까지 하사하였다.
- 1495년(연산군1)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고, 1496년 영안남도永安南道(함경남도) 병마평사를 거쳐 다음해 호당에 들어가 사가 독서하였다가, 1498년 무오사화 때 훈구파의 모함으로 조의제문 사건에 연루되어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권오복 등과 함께 처형되었고 1504년 갑오사화 때 부관참시 되었다.
- 1506년(중종1)에 신원되어 1552년(명종7)에 이조참판 1707년(숙종33)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전북 전주의 황강사에 제향 되었다.
- 4) 성제원 成悌元(1506-1559)
- 조선 명종조의 학자로 자는 자경子敬, 호는 동주東洲, 본관은 창녕이다. 공주 출신으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의학 지리학 복술 등에 능하였으나, 관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만년에 유일로 천거되어 보은현감을 지냈으며 퇴직 후에는 다시 공주 옛집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 5) 서기 徐起(1523-1591)
-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대가待可, 호는 고청靑靑, 본관은 이천이다. 서경덕 이충보 이지함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홍천 지리산 계룡산 근처로 옮겨 다니면서 학문과 강학에만 전념하였는데 계룡산 북쪽 고청봉 아래서 강

학을 하면서 충현서원을 창건하였다. 서기는 원래 충현서원에 배향되지 못하고 별사되었다가 1925년에 훼손되었던 서원의 사우가 복원되면서 다른 향현鄉賢과 함께 제향 되었다.

- 6) 조헌 趙憲(1544-1592)
- 조선 중기 문인이자 유학자 의병장으로,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시호는 문열文烈, 본관은 배천이다. 이이 성혼의 문인으로 1565년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1567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68년 정주목파주목 홍주목의 교수를 하면서 사풍士風을 바로 잡고 1572년 성절사 박희립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1575년 경기도 통진 현감 때 내노內奴의 청렴죄를 다스리다 죽인 죄로 3년간 귀양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나 공조좌랑 전라도도사 종묘서령을 역임하였다.
- 1587년 정여립의 흉패 함을 만인소를 지어 올리고 현도상소縣道上疏를 5

차례 올렸으나 국왕의 진노를 사 관직에서 물러나 옥천군 안읍 밤터로 돌아와 후울정사後栗精舍를 짓고 제자를 양성하였다.

1591년 일본의 풍신수길의 전소를 보내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하여 옥천에서 올라가 지부상소로 대궐문 앞에서 3일간 일본 사신 목 벨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여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 1600여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으나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 해산 당하고 불과 700명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하여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왜군 고바야기와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병력이 모두 전사하였다.

1604년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책록되고 1734년(영조10) 영의정에 추증되고, 1883년(고종20) 문묘에 배향되었고 표충사의 4개 서원에 제향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절지 칠백의충이 성역화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충현서원 사설 우암송선생 추향기

* 중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성금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3.6.21~8.21)

◆ 대중회 장학성금

추파공파 천곡자손중중	3,000,000
안소당공파 송준자 대전 중구 대둔산로	500,000
송석근 대중회장	200,000

◆ 고액 연회비 납부자

송치옥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0,000
송재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0,000
송무영 대전 서구 청사로	100,000
송성록 대구 구위군 삼국유사면	100,000
송기석 7월 4일 농협	100,000

◆ 중중 및 종친회 연회비

• 연안공파중중 500,000

• 추파공파 현감중중 260,000

송경한 경기 용인시 동백2로	
송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송주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송승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송동현 서울 노원구 마들로	
송우현 서울 성동구 용답13길	
송이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송순한 서울 은평구 진관2로	
송민한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송근영 경기 가평읍 가평읍	
송재찬 서울 관악구 봉천로	
송용국 경기 여주시 상거길	
송근주 강원 춘천시 후석로	

• 장성공파중중 300,000

송준호 서울 구로구 새말로	
송진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영석 대전 유성구 상대로	
송영래 대전 서구 둔산로	
송재풍 세종 조치원읍 문화로	
송명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송영관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로	
송규호 대전 중구 태평로	
송재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송병호 충북 보은군 탄부면	
송윤호 대전 동구 성남로	
송뢰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	
송영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송재환 충북 옥천군 군북면	

• 경남 합천종친회 700,000

송경동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계주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광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국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권승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길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나영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송남규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송대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대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동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득용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명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명화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봉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삼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상록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상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상용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석용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선용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수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순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순현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취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승환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신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연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영기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영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송영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영철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영춘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운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인갑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인만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인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인석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인판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재광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재근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재성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재수 경남 합천군 가회면	
송재영 경남 합천군 적중면	
송조희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갑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구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범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식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종택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진룡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창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창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송철근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철수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칠봉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칠용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태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태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학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학식 경남 합천군 쌍백면	
송학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헌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국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호기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덕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무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호석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석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업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호율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칠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호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송호판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송호현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이명구 경남 합천군 대병면	

• 한발친목회 300,000

송대용 대전 중구 서문로96	
송병만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송용순 대전 동구 은어송로117	
송세현 대전 중구 계룡로852	
송윤현 대전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송재욱 대전 유성구 배울로61	
송남섭 대전 중구 충무로107번길	
송재욱 대전 서구 문예로174	
송현호 대전 서구 서문로96	
송영래 대전 서구 둔산로155	
송영완 대전 서구 관저동로42	
송태용 대전 동구 대전로664	
송영석 대전 유성구 상대로17	
송영주 대전 동구 산내로1257번길	
송규근 대전 중구 대중로101번길	

◆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재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50,000
송일현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20,000
송영무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000

대구광역시

송철운 대구 달성군 기장면	20,000
----------------	--------

광주광역시

송복남 광주 광산구 삼도대봉길	20,000
------------------	--------

대전광역시

송우영 대전 동구 동구청로	50,000
송지영 대전 유성구 구즉로	50,000
송영수 대전 동구 가양로	30,000
송기수 대전 서구 관저북로	25,000
송명호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20,000
송성중 대전 서구 청사로	20,000
송희준 대전 서구 둔산로	20,000

경기도

송인석 경기 안성시 동안구 경수대로	30,000
송인백 경기 양주시 동일로	20,000
송철주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20,000

경상북도

송배근 경북 영주시	30,000
송춘근 경북 영주시 원당로	30,000

경상남도

송학빈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40,000
송영덕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30,000
송이석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0,000

전라북도

송재근 전북 무주군 부남면	50,000
----------------	--------

주소 및 성명 미상

송영호 6월 21일 농협	20,000
미상(삼가공파) 7월 12일 농협	30,000
미상(안소당공파) 7월 18일 농협	20,000

연회비 납부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원들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원께서는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 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중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중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恩宋의 文化財 (20회) =

54. 영동 한천정사

-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8호
- 분 류 :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 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99. 09. 15.
- 시 대 : 근대
-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동1길 48
- 관리단체 : 송씨문중

영동 한천정사(寒泉精舍)는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1607~1689) 선생이 한천팔경(寒泉八景)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절경을 음미하면서 서재를 짓고 글을 가르치던 곳으로 한천팔경은 사군봉, 월류봉, 산양벽, 용연대, 화현악, 청학굴, 범존암, 냉천정으로 이

름 붙여진 그 모양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후세에 우암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글을 가르치는 한천서원이 세워졌다가 고종 5년(1868)에 철폐된 후 유림들이 1910년 한천정사(寒泉精舍)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한천정사 현판 ▲ 한천정사 전경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중앙에 대청마루가 있고 양쪽 끝에 온돌방을 두었다.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앞면에 문을 두었는데 앞면 양측에 은행나무가 있다. 이 건물은 건축양식에서 옛 기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소라천, 장교천, 중화령의 물이 이 부근에서 합류하여 월류봉과 어울려 선경을 이루는 장소에 위치하여 우암선생의 기상과 자취를 살필 수 있는 곳이며, 이전 고려시대 대 사찰이 있었던 자리로 생각되는 석탑 부재가 일부 남아있다.

55. 용강서원

- 종 목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호
- 분 류 :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 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84. 05. 17.
- 시 대 : 근대
-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용화로 258 (제원면)
- 관리단체 : 금산 유림

금산 용강서원(龍江書院)은 조선 숙종 42년(1716)에 세워졌으며, 우암 송시열(宋時烈),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시남 유계(兪槩), 미호 김원행(金元行), 늑천 송명흠(宋明欽)의 강학 활동이 이어졌던 금산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그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폐쇄되었다가, 유림이 헐린 재목을 모아 강당을 복원하였다. 건물로는 5칸 규모의 강당이 있는데,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쪽은 좁은 공간으로 꾸몄다. 조선 시대에 서원의 확장을 막는다는 구실로 폐쇄되었지만, 광복 후 지방 유림의 정성으로 다시 복원하여 금산 지방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서원이다.



▲ 용강서원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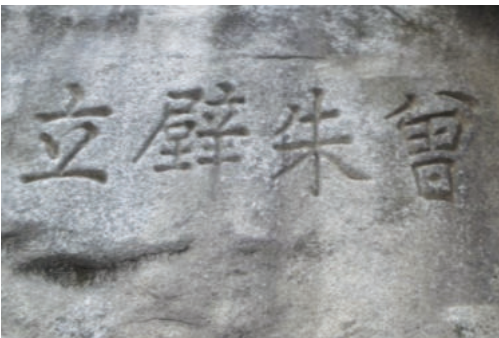


▲ 용강서원 전경

56. 우암 송시열 집터

- 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석각류
- 수량/면적 : 각자 바위 1기/토지 6.2㎡
- 지 정 일 : 1984. 07. 05.
- 시 대 : 조선 시대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17길 (명륜동 1가 2-22)
- 관리단체 : 종로구청

이곳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이 살던 옛 터로, ‘우암구기(尤庵舊基)’라고 새겨진 비석이 함께 남아 있다. 우암은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의 학풍을 계승한 노론의 영수이자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다. 또 후에 효종이 된 봉림대군의 스승이었고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치의 중심인물이 되어 북벌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자연 암벽 위에 ‘증주벽립(曾朱壁立)’이라는 우암의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유교의 성현인 증자(曾子)와 주자(朱子)의 뜻을 계승하고 받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증주벽립’ 외에도 근처에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정에는 ‘금고일반(今古一般: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과 ‘영반(詠磐: 올라앉아 시를 읊는 바위)’이라는 우암의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다. 이 일대는 송동(宋洞)이라 불렀는데, 송시열의 집이 있던 곳이라는 의미다. 이곳은 골짜기가 깊고 꽃나무들이 많아 봄에 놀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앵두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우암구기 각자 증주벽립



▲ 연립주택의 축대가 된 현재의 바위벽